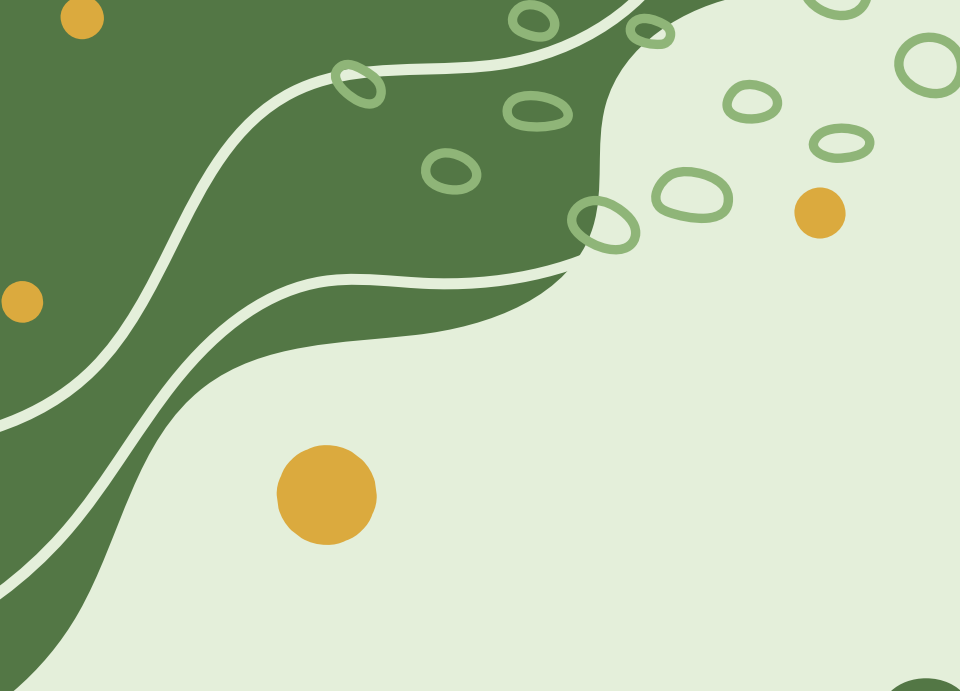




0~2세 교사학습공동체

영아가 주도하는 ESD 꿈틀, 6회차 결과 보고서

2026. 1. 21.

사회복지법인 혜성어린이집



1. 운영개요

- **회기:** 학습공동체 6회차
- **일시:** 2026. 1. 21.(수) 14:00~14:30
- **장소:** 혜성어린이집 2층 유희실
- **주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자연물 놀이」 실천 사례 공유
- **목적:** 연령별 자연물 놀이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놀이 과정에서 나타난 영아의 반응과 배움을 나누며, ESD(지속가능발전교육) 관점에서의 의미와 확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추진 내용

1) 연령별 자연물 놀이 실천 사례 공유

각 반에서 실천한 자연물 놀이 사례를 공유하며 놀이의 과정과 영아의 반응을 중심으로 나눔을 진행함.

- 0세반: 눈·얼음 감각 탐색 놀이

→ 자연 현상을 직접 경험하며 감각 중심의 탐색이 이루어짐.

- 1세반(푸른솔잎): 양파 키우기

→ 자연물에 애정을 표현하며 생명 존중의 태도 형성.

- 1세반(고운햇살): 나뭇가지 구성 놀이

→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 확장을 통해 자원 순환과 자연 존중의 가치 경험.

- 2세반: 돌멩이·솔방울·얼음 관찰 놀이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기다리며 탐구적 태도 형성.

2) 영아 반응 및 배움 나눔

- 자연물 놀이에서 영아의 몰입도와 정서적 반응이 깊게 나타남.
- 자연물을 단순한 놀이 재료가 아닌 '교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관찰됨.
- 기다림, 호기심, 애정 표현 등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가치(존중, 관계, 책임)의 기초가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남.

3) 기록 및 자료화에 대한 논의

- 놀이 결과물이 없는 활동의 경우 기록이 부족해 공유에 어려움이 있음.
- 사진이 없더라도 관찰 기록과 대화 기록을 통해 놀이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에 공감함.

3. 운영 결과 및 성과

1. 자연물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교사들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됨.
2.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ESD 관점에서 자연물 놀이가 생명 존중, 자원 순환, 기다림과 책임의 가치를 담고 있음을 확인함.
4. 교사 간 사례 공유를 통해 놀이 확장 아이디어를 얻는 협력적 학습 분위기 조성

- 놀이 결과물이 없는 활동의 경우 기록이 부족해 공유에 어려움이 있음.
- 사진이 없더라도 관찰 기록과 대화 기록을 통해 놀이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에 공감함

4. 개선점 및 향후 실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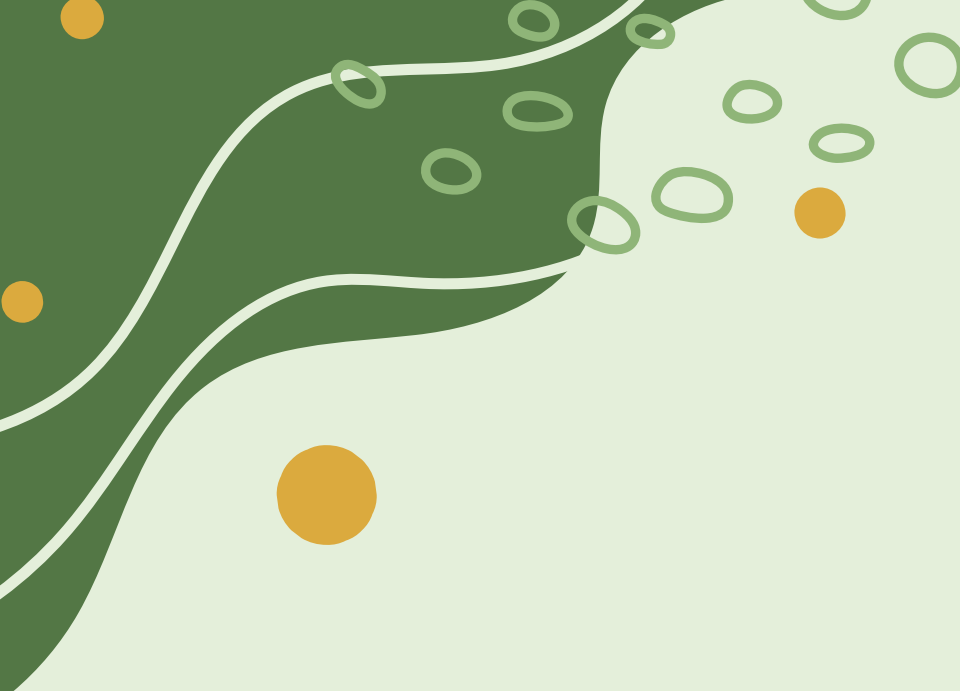
1. 놀이 전 '기록 담당' 교사를 정하여 사진 또는 간단한 메모 기록 강화
2. 말·표정·몸짓 중심의 서술형 관찰 기록 활성화
3. 놀이 후 짧은 회고 시간을 정례화하여 배움 공유 지속
4. 자연물 놀이를 일회성 활동이 아닌 일상 속 지속적 실천으로 확장

5. 총평

6회차 학습공동체를 통해 자연물 놀이는 특별한 준비 없이도 영아의 깊은 몰입과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 활동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연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영아기부터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기초가 됨을 공유하였다. 앞으로도 놀이의 결과보다 과정을 기록하고 나누는 문화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함께 성장시켜 나가고자 한다.

RESULT





**THANK
YOU**